

# 통일부장관,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도착 회견내용

- 2004. 5. 7(금),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장 -

## 1. 회담결과 설명

3박 4일 동안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1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회담 중에서 가장 힘들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일정을 정해서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과 군사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그 틀을 만드는 것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우리 대표단의 가장 큰 목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제·사회·문화교류 협력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셈이고, 군사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이 시작되어야만 우리 국민들이 안보불안감을 없애고 평화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고 또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설정

했던 겁니다.

물론 북측이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에 나와서 어떤 문제를 얼마나 심도있게 우리와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그 회담의 장래나 또는 성과를 전망해야 되겠지만 일단 경협과 군사적 긴장완화가 균형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나가는 틀은 일단 이번 회담에서 마련한 셈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북측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측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대해 상당히 강도높게 비난하고 그것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컨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를 하면 군사당국자회담을 할 수 있다' 또는 '이지스함을 동해에 배치하는 것을 철회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등 그야말로 긴장완화의 결과로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을 긴장완화의 회담의 조건으로서 내거는 독특한 논리구조의 설명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로 잡아서 하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인데 장성급회담을 시작해서 서해상에서의 긴장완화 내지는 꽃게 철의 무력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문제부터 우선 풀고, 그 다음 남북간에 여러 가지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 또는 군사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다보면 자연히 얘기가 거기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식으로 설득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끝날 때까지 북측은 先중지 後회담, 우리는 先회담 後 긴장완화 이런 식으로 논리 대결을 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대충 약속하고 일단 군사회담부터 끌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탄 소리를 하는 방식도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다른 사항도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군사 당국자회담을 공동보도문에 넣을 수 없게 되면서 회담기간 중 협의된 일정들이 결국 공동보도문에 못 들어가게 됐지만 이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아마도 제10차 이산가족상봉사업이 6.15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담 과정에서 또는 회담 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남북화해·협력 관계가 후퇴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그야말로 irreversible stage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측에게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어떤 대외관계보다도 비중이 높은 관계로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화해·협력과 평화·안보 문제를 균형있게 추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북측이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질의·답변

**【질 의】** 서울·평양 상주 연락사무소에 대한 북측 반응은?

**【답 변】** 북측은 지금 거기까지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통해서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아직까지 보였습니다.

**【질 의】** 가시기 전에 식량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북측에서 요청을 하거나 우리쪽에서 제안한 것은 없었는지?

**【답 변】** 없었습니다. 특히 군사당국자회담을 수락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공동보도문 낭독후 종결 회의가 끝난 뒤에 황급하게 통보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질 의】** 마지막 10분간 접촉하실 때 북측이 왜 그동안 수용하지 않았던 군사당국자회담을 막판에 이르러서야 수용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그 10분간 군사당국자회담 이외의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는지?

**【답 변】** 북측에서 늦어진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죠. 대신 '군부에서 조금전 우리 회의가 끝날 때쯤 결정이 나서 연락이 왔다.' 고 말했는데, '우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차기 회담날짜만 잡고 가겠다'는 우리측 일관된 의지를 확인하고는 내부적으로 조율하느라 그 시차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질 의】**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장소, 대표 구성과 같은 구체적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답 변】** 그건 우리쪽에서 제안한 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거예요. 장소도 제안을 했고.

※ 지난 2월 우리측은 대북전통문을 통해 남북장성급회담을 소장급을 대표로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안

**【질 의】**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 변】** 핵문제 관련해서는 공동보도문을 작성하기 위한 문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받았고 합의문이 다 됐었습니다.

결국 군사당국자회담 때문에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은 개선안,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특별의 조항에 대한 합의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3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협력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지만, 북측은 이러한 특별의 조항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워킹그룹 회의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우리가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핵문제를 포함시키려고 할 때처럼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았지요.

**【질 의】** 북측에서 왜 짐 다 싸놓고 떠나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막판에 군사당국자회담을 수용했다고 보시는지?

**【답 변】** 장성급회담을 남쪽 당국이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경우에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북측에게는 그게 간단치 않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장관급회담의 대표단들이 회의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간에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조금 늦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북한 내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이지스함 배치를 완전히 거부하면 회담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높은 차단벽을 쳐놨던 말이죠.

차단벽을 쳐놨다는 자체가 자기들로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성급회담에 나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갑론을박이 계속됐으리라고 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남북교류협력 이 제일 큰 힘이 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왔던 소위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군사 분야에서의 긴장완화나 협력을 견인해 올 수 있다, 유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공허하거나 근거없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질 의】** 권호웅 단장과 처음 회담하셨는데 인상이라든가

그리고 김령성 前단장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답 변】** 특별히 북측의 수석대표, 북측 단장의 개인적인 어성향이 남북대화에 있어서 크게 방향을 바꾸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젊은 나이에 단장까지 올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고 또 제가 보기에다 굉장히 사소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쪽에서도 좀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경위로 북측 장관급회담 단장을 이번에 세 번째 회담상대역으로 만난 셈인데, 다 각기 특징은 있죠.

특징은 있지만 권호웅 단장은 역시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 의】** 날짜가 없다는 점에서는 지난번 군사당국자회담 합의와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꼭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답 변】** 북측은 지난번 13차 장관급회담 때 자기들은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를 건의한다.'는 문구형식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개최한다'고 써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들 표현에도 '합의'라는 용어를 썼습

니다.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북측은 '우리가 합의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미 준비가 다 됐다는 뜻이니까 기자들한테 설명해도 좋다.' 또 '인차 연락이 갈 겁니다.' 이렇게 '인차'라는 말을 썼어요. '곧'이라는 뜻입니다.

//끝//